

아쉬운 뿌리내리는 풍토

李 相 俊

(韓國外大 英語科)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대학원 중심 교육을 한다고 떠들어 대자 교육부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대학들도 덩달아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을 운용하겠다고 자못 학문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원은 최고의 전문 또는 전공 학문을 전수하는 곳이다. 거기서는 교양 강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 대학마다 대학원 중심 교육을 한다면 이 나라에는 전문인들만 양성하겠다는 꼴밖에 다름이 아니다.

전문적인 것은 꼭 대학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길가의 구두 수선공의 수선하는 방법은 바로 전문적인 것이 된다. 이 나라에 그저 숨쉴만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대학들만이 판을 친다면 지성 또는 교양을 지닌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보라! 한 대학의 학생들이 전부가 전공 분야에만 몰두한다면 그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 대학의 학생 비율을 본다면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지망생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극소수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 운용되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실정으로는 한 대학에서 대학원은 그 대학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부 학생들이다. 그들은 지성인 또는 교양인이 되기 위한 교육인 전인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인적인 교육의 바탕 위에서 사회에 직접 진출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사회로 곧바로 진출하는 대학 졸업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문 지식과 교양이나 상식을 갖고 얼마든지 그 전공한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연구를 스스로 계속해 나가기 마련이다. 대학원으로 계속 진학하는 대학 졸업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문지식과 교양이나 상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전공 학문을 보다 넓고 깊게 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학은 오히려 학부가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전공 지식과 교양과 상식을 갖추 수 있게 하는 대학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왕 헤운 것들을 그저 그러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가 조금 그럴싸한 말로 그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떠들어대면 귀가 솔깃해지며 이왕의 것을 무

조건 없애거나 뜯어 고치려고 든다. 덩달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옛것들은 무조건 버리거나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걸거나 후퇴하거나 낭비만 하고 있다.

무엇이나 아무리 나쁜 것도 잘 다루면 쓸모가 있다. 하물며 아무런 탈도 [없는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해방 후에 우리는 서구 문물을 신주처럼 받아 들이고 우리의 것들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교육을 조금 받아 온 사람들은 마치 서구 문물의 대변자가 된듯 우리의 것들을 깡그리 빗질하듯이 쓸어버리고 몇 푼 얻어 배운 알량한 지식을 마구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것도 겨우 억지 춘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쯤 이르면 또 다른 저명한 신진학자가 외국에서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것을 들고 나와 그것을 깡그리 갈아치우는 것이 좋겠다고 대중매체에 한번 외치면 관계자들은 ‘옳거니’ 하며 맞장구를 쳐준다.

과외망국의 현상은 허풍이 아니고 실정이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평준화 조치가 취해졌다. 그것도 새것이였기에 처음에는 모두 “아, 그래 그거야.”하면서 자못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척했다. 웬걸 얼마 -몇 년 -지나자 경쟁력이 떨어진다느니 영재교육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중·고등학교 경쟁 입시를 부활시키자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선지자의 권면과 같은 행세를 했다.

대학 입시는 그 폐단이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국가고시로 대체되었다. 그것도 정착이 되어가자 이제는 대학 자율화를 내세워 각 대학에 맡기라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객관식 사지선다 시험출제가 논리적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데 공헌한다는 것이었다.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객관성에 있다. 그렇다면 객관식 시험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논리적 사고의 측정은 반드시 주관식 출제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형 주관식 출제가 조금은 논리적 사고력을 자극시킨다고 치더라도 주관식 출제에 따른 답안지 채점상의 폐단이 불러 일으키는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인류의 문물제도는 축적과 보완 그리고 발전에 그것의 존재와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 일회용으로 한번 써먹고 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웬일인지 무조건 현것은 새것보다 좋지 않아 버리고 새것만을 좇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교육계와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분야들에서는 한술 더 떠서 교육 심리학은 무조건 서구적이어야 하고 학업 방식도 역시 서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계와 학문 분야들에서 설쳐대는 행태이다.

만물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존재한다. 인간은 인간의 시조가 있고 인간의 역사는 그것의 시작이 있다. 인간은 현재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할애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보다 더 큰 비중의 상상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과거에 어떠한 성격을 띠었으며 미래에 어떠한 성격을 띠는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더욱 많이 생각한다. 교육과 학문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 학문은 백년 계획을 세워 놓는 일이라고 하여 백년지계획이라고까지 말한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엮여져 나갈 것이고 현재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육과 학문은 과거의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더구나 우리 고유의 전통은 어디 먹다 남은 썩떡이나 기껏해야 골동품 정도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직후에 서구의 새로운 문물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덮쳐왔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학문에서는 고스란히 서구적인 것이 판을 쳤던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의 교육과 학문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갈팡질팡 정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전에 이상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방 의학을 연구했다면서 권위자의 행세로 귀국하여 그 위력을 여지 없이 발휘했다. 육류, 특히 돼지고기는 성인병에 큰 원인이 된다고 TV에서 한바탕 떠들어 댔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돈육축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의 교육백년지계획에도 다름이 없었다. 예컨대, 앞에서 지적했듯이 입시제도는 객관식 출제 방식을 미국에서 수입해왔다. 그것의 전체적인 의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조금의 주관적인 사유에 대한 테스트가 미흡하다고 해서 객관식 출제 방식을 전부 철폐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뿌리가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조삼모개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잘되어 가는 것도 얼마 지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복고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퇴계 선생은 이왕에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무엇이나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조삼모개식으로 바뀌온 것들을 재검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 연후에 새로운 것이 더 좋다면 그것을 취하는 현명한 생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학문의 분야들에서는 뿌리가 견고히 박힌 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그 시작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 특히 교육과 학문에서는 발전이 서서히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정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불시에 떨어졌거나 땅에서 금방 솟아난 것 같은 형편이다. 뉴턴 다윈이나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학설을 발표하기까지는 30년이 넘도록 땀을 들였다. 비단 학술분야뿐만이 아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정치 풍토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석 구석이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꾸준히 몇십년이고 자기가 맡아 하는 일에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을 그래도 오늘날 서구인들이 보여 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전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사고일 것이다. 그들 서구인들에게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네들이 오늘날 서구문명이 인류문명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흉내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수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필두로 참다운 인간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것의 전형적 보기로 한글은 인류의 문자의 본보기다. 그것 뿐이라! 원효대사, 이퇴계, 이율곡 등 따져보면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학자들이 우리 민족이 인류의 자랑거리임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인류 최초의 금속문자는 누가 만들어 냈는가? 이순신 장군의 불가사의한 해전전략은 영국의 벨슨 제독보다 더 뛰어난 해전술이었다. 그밖에도 헤아려보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여기저기에서 엿보인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소위 서구 선진문물의 찌꺼기를 얻어 먹는 꼴이 되고 말았는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태평양의 주역이 된다는 떠돌고 있고, 옛날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우리를 가리켜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알보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또는 인류의 정신을 따라 인류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뒤늦게나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의 잠꼬대가 아니다.

우리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은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를 비교하여 우리 민족의 잠재된 우수성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었다. 교육과 학문은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 우리다운 문예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